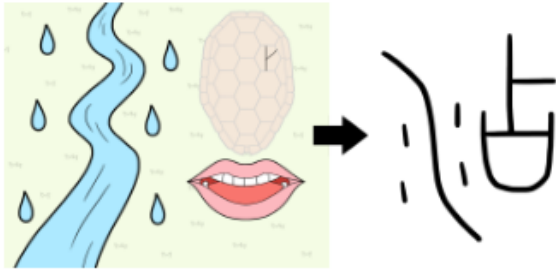


형성문자①



添

더할 첨

添자는 '더하다', '보태다', '덧붙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添자는 水(물 수)자와 添(더할 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添자는 '욕보이다', '더럽히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 역할만을 하고 있다. 添자는 본래 "강물이 범람하다"라는 뜻을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러나 후에 의미가 변화하면서 지금은 '더하다'나 '보태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참고로 소전까지만 하더라도 沾(더할 첨)자가 '더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添자는 沾자의 속자(俗字)에 불과했었지만, 지금은 添자가 '더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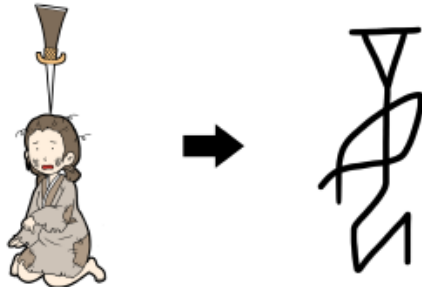
沾

소전

添

해서

회의문자①



妾

첩 첩

妾자는 '첩'을 뜻하는 글자이다. 妾자는 立(설 립)자와 女(여자 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妾자에 쓰인 立자는 幸(매울 신)자가 생략된 것이다. 幸자는 노예의 몸에 문신을 새기던 도구를 그린 것으로 '노예'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노예를 뜻하는 幸자와 女자가 결합한 妾자는 '여자 노예'를 뜻했다. 노예 중 일부는 주인의 첩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妾자는 후에 '첩'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妾

갑골문

妾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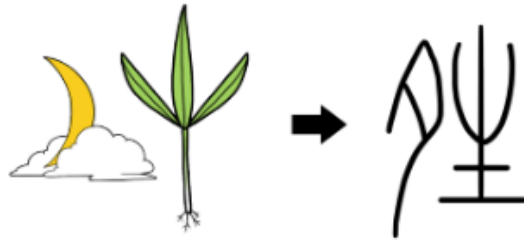
妾

소전

妾

해서

회의문자 ①



晴

갯 청

晴자는 '개다'나 '맑다', '개운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晴자는 日(해 일)자와 靑(푸를 청)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소전에서는 夕(저녁 석)자와 生(날 생)자가 결합한 𠄎(갯 청)자가 '개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𠄎자는 비가 그친 뒤 모습을 드러낸 달(夕)과 땅 위로 올라오는 풀(生)을 함께 그린 것으로 날이 개고 있음을 표현한 글자이다. 그러나 해서에서부터는 푸르고 맑은 날이라는 뜻을 담은 晴자가 '개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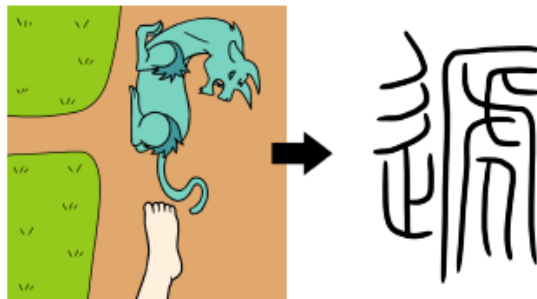
𠄎

소전

晴

해서

회의문자 ①



遞

갈릴 체

遞자는 '갈리다'나 '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여기서 '갈리다'란 무언가를 '서로 바꾸어 갈다'라는 뜻이다. 遞자는 본래 '역참(驛站)'과 같이 말을 바꿔 타며 소식을 전한다는 뜻으로 쓰였던 글자였다. 遞자는 辵(쉬엄쉬엄 갈 착)자와 虬(뿔범 사)자가 결합한 것이다. 여기서 虬자는 뿔이 달린 전설의 동물을 표현한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이 뿔범은 물과 육지를 번갈아가며 생활했다고 한다. 그래서 遞자는 이렇게 다양한 장소를 돌아다니며 생활한다는 '뿔범'을 응용해 말을 갈아타며 소식을 전한다는 뜻을 표현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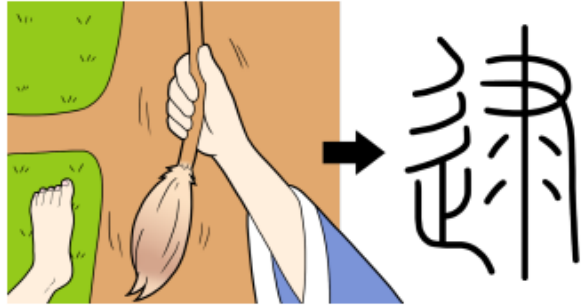
遞

소전

遞

해서

회의문자①



逮

잡을 체

逮자는 '잡다'나 '체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逮자는 辵(쉬엄쉬엄 갈 착)자와 隹(미칠 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隹자는 동물의 꼬리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꼬리를 붙잡은 모습을 그린 隹자에 辵자를 결합한 逮자는 누군가를 추격하여 붙잡는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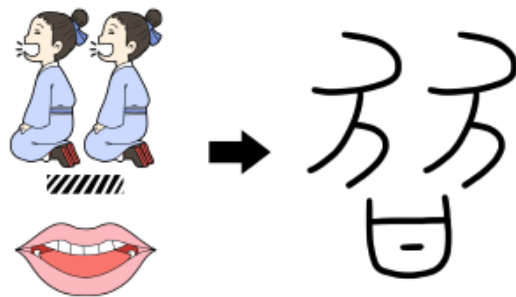
逮

소전

逮

해서

회의문자①



替

바꿀 체

替자는 '바꾸다'나 '식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替자는 두 개의 夫(지아비 부)자와 日(가로 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夫자가 아닌 欠(하품 흠)자가 쓰였었다. 欠자는 입을 크게 벌려 하품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금문에서는 이렇게 하품하는 모습의 欠자를 이용해 '피곤하다'나 '늘어지다'라는 뜻을 표현했었다. 하지만 후에 매우 피곤하여 기력이 다 했으니 대상을 바꾼다는 의미가 파생되면서 '바꾸다'나 '대신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글자 역시 欠자에서 夫자로 바뀌면서 본래의 의도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替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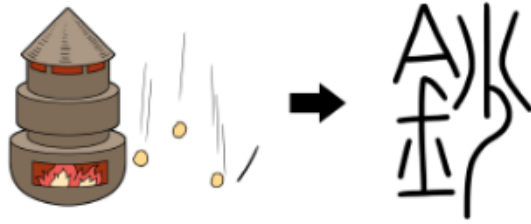
替

소전

替

해서

형성문자 ㉠



抄

뺨을 초

抄자는 '뺨다'나 '베끼다', '노락질 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抄자는 手(손 수)자와 少(적을 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手자가 아닌 金(쇠 금)자가 들어간 鈔(노락질할 초)자가 쓰였었다. 고대에는 무력으로 재물을 강탈하는 것을 鈔라고 했다. 그러나 후에 手자가 들어간 抄자가 등장하면서 무언가를 '뺨아내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예를 들면 고대에는 부패한 관리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초가(抄家)라고 했는데, 이러한 뜻이 확대되면서 지금은 '(문서를)베끼다'나 '(필요한 것을)뺨는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문서에 있는 글을 베끼는 것을 약탈의 의미로 풀이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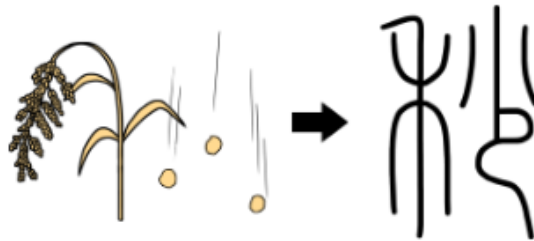
鈔

소전

抄

해서

회의문자 ㉠



秒

분초 초

秒자는 시간의 '분초'나 벼의 '까끄라기'를 뜻하는 글자이다. 秒자는 禾(벼 화)자와 少(적을 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少자는 작은 파편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적다'나 '작다'라는 뜻이 있다. 秒자는 본래 벼의 까끄라기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까끄라기란 벼·보리 등의 낱알 겉껍질에 붙어있는 작은 수염 말한다. 그러니까 秒자는 禾자와 少를 결합해 벼에 있는 작은 까끄라기를 뜻했다. 그러나 지금의 秒자는 시간의 세밀한 단위인 '분'과 '초'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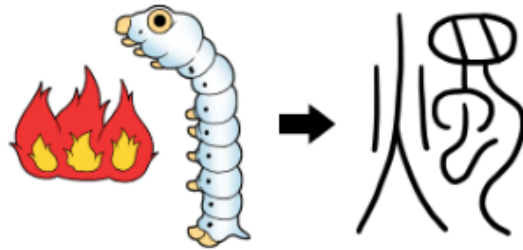
秒

소전

秒


해서

형성문자①



燭

촛불 촛

燭자는 '촛불'이나 '등불', '비추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燭자는 火(불 화)자와 蜀(나라 이름 즉)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蜀자는 누에고치를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燭자는 어두운 방 안을 밝히던 '초'나 '촛불'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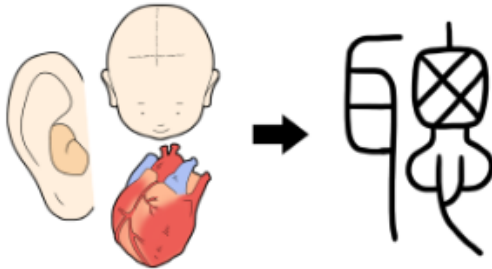
燭

소전

燭

해서

회의문자①



聰

귀밝을
聰

聰자는 '귀가 밝다'나 '충명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聰자는 耳(귀 이)자와 聰(충명할 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聰자는 사람의 머리와 심장을 함께 그린 것으로 '충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충명하다'라는 뜻을 가진 聰자에 耳자가 결합한 聰자는 '귀가 밝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귀가 밝다'라고 하는 것 이해력이 빨라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라는 뜻이다. 聰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똑똑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聰

소전

聰

해서